



고흥 해창만오토캠핑장



나주 목사내아

고흥 해창만오토캠핑장·나주 목사내아·장성 청백한옥·함평 주포한옥마을

시골 감성 가득 '전남 촌캉스' 즐기세요

전남도 6월 추천 관광지 선정...다양한 체험·힐링 만끽

전남도가 시골 정취를 만끽하는 '전남 촌캉스'를 주제로 고흥 해창만오토캠핑장, 나주 목사내아, 장성 청백한옥, 함평 주포한옥마을을 6월 추천 관광지

로 선정했다. 고흥 해창만 오토캠핑장은 간척지에 조성한 수변공원에 자리잡고 있다. 오토캠핑장 2면, 일반캠핑장 27면, 글램핑장 14동이 조성돼 있다. 캠핑장은 넓은 간척지와 바다 사이에 위치해 마치 바다 한 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목

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 명소다. 가까운 선착장에서 낚시를 즐기며 어촌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나주 목사내아 금학헌(琴鶴軒)은 조선시대 나주를 다스리던 목사가 살았던 가옥을 2009년 복원해 전통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학헌은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학처럼 고고하게 살고자 하는 선비의 정신이 깃든 집'이라는 뜻이다. 허룻밤 머물며 조선시대 상류층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목사내아를 500년간 지킨 팽나무는 소원

이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좋은 기운을 받고자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 청백한옥은 맑을정(淸), 흰백(白) '맑고 깨끗한 집'이라는 뜻으로 조선 3대 청백리로 알려진 박수량 선생의 청빈함을 전해들은 명종이 후손들에게 하사한 집을 2010년 중건한 한옥체험관이다.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 15개 객실로 이뤄졌다. 흥길동테마파크에 위치하고 있어 흥길동 생가, 산채체험장, 전통무술국궁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함평 주포한옥마을은 주포항과 돌머리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서해안의 정취를 느끼며 한옥 민박 체험

이 가능하다. 마을에서 보이는 함평만의 낙조는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잘 가꾸진 꽃, 나무와 돌담을 따라 산책을 하며 고즈넉한 한옥마을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인근에서 달근 유황돌을 바닷물에 넣어 만든 수증기를 쬐는 함평의 전통해수찜질로 일상의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다.

조대정 관광과장은 "전남은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캠핑장, 숙소 등 체류형 관광자원이 많다"며 "어느 때보다 정량감이 넘치는 계절 6월에 전남의 푸른 바다와 산을 배경으로 '촌캉스'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추천했다.

/김재정 기자



장성 청백한옥



함평 주포한옥마을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협의체 다시 만날 것"

姜시장 "이르면 이번주 대화"...면담 이후 방침 공식화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풍암호수 수질 개선과 관련, "주민협의체와 다시 한 번 만난 뒤 광주시의 종합적 입장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8일 주민협의체와 서로의

입장을 들었다"며 "그때(8일) 협의체에 원래 TF안 수용을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협의체는 약품을 통한 3개월 시범 운영 검토 의견이 제시돼 상호 검토를 거쳐 1주일 정도 후에 다시 만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 시장과 주민협의체는 이르면 이번 주에 다시 만나 의견을 조

울할 것으로 보인다.

'원형 보존'에서 '수심 조정'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 강 시장은 "다시 만나 대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그 만남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강 시장은 "(풍암호수 수질 개선은) 너무 복잡한 문제고 스토리가 아주 길다"며 "수심과 수량이 전혀 변동 없이 수질 개선이 가능한 것인지, TF안이 정

말 원형을 훼손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주민 요구대로 '원형 보존'을 검토했다가 매립해 수심을 낮춰 담수량을 줄이는 '수심 조정'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풍암호수 수질 개선과 관련, 원형 보존 방식을 적용하면 매년 30억 원의 관리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이 늦어질 경우 공원 개발 사업 지연, 그에 따른 책임 문제와 소송까지 우려가 있다는 게 광주시의 판단이다.

반면, 주민협의체는 3개월 만에 광주시가 약속을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강 기자

광주 공공와이파이 속도 4배 빨라진다

관제센터 개소...실시간 관제 품질 개선 기대

광주지역 공공와이파이가 최대 4배 빨라진다.

광주시는 12일 시청에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지역민의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관제센터'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시민의 통신 비용 절감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2013년부터 공공와이파이망을 꾸준히 확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전동시장, 복지시설, 보건소, 복지센터, 터미널, 관광지 등 1천800대를 구축하고 지역 시내버스에도 1천400대를 설치, 전국 최초로 모든 시내버스에서 데이터를 무료

로 사용할 수 있는 공역지제가 됐다.

지난 5월 기준 광주시 공공와이파이 총 데이터 사용량은 434테라바이트, 총 접속건수 6천927만2천441건에 달했다.

광주 공공와이파이 관제센터는 지역 공공와이파이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건수, 트래픽 양 등을 확인·분석해 관련 장애를 신속 처리한다.

광주시는 5월 한달 간 관제센터를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120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역에는 총 3천300대의 무료 공공와이파이 가가동된다. /박성강 기자

올해 전남서 2명 사망 'SFTS 주의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드기 매개감염병...야외활동 피부노출 최소화 당부

올해 전남에서 진드기 매개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12일 "설사, 오한, 발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지난 3일 숨진 순천의 80대 여성이 SFTS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 최소화 등 개인 위생 준수를 당부했다.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이다. 임상적으로 고열,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매년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치명률(18.7%)에 비해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1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사망자는 지난 4월 전남의 80대 여성에 이어 모두 전남에서 발생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 보건소와 협력해 즉각 환자 발생 지역의 진드기를 채집하고 병원체 보유 양상을 조사하며 발생 추이를 파악하는 등 진드기 감시활동 강화 및 환자 발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재정 기자

광주소방,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기준 강화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2일 "오는 7월1일부터 공사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임시소방시설은 기존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등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3종의 소방시설이 추가된다.

강화된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신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 작업 전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확대 위험 사전 차단,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당부했다.

특히 담배꽂초 화재 예방을 위해 특정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위험물로 인한 폭발이나 화재 우려 장소에서 화기 취급 금지를 강조했다. /박성강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